## 김현미 장관, 해외건설 근로자들과 깜짝 오찬

## - 11일 브루나이 템브롱 교량 현장 구내식당 오찬간담회 개최 -

김현미	국토	교통부	· 장관	은 3월	11일(월)	문재인	대통령의	브루나이
템브롱	교량	건설	현장	방문에	앞서, <b>현</b>	면장 구내	<b> 식당</b> 에서	해외건설
근로자들	들과 💲	2찬 긴	담회를	를 개최히	하고 격의	없는 <b>소</b>	<b>통</b> 의 시간	을 가졌다.

- 이 간담회에는 템브롱 교량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림산업과 협력업체 직원 35명이 참여하였으며, 직원들이 김현미 장관에게 방문을 제안하여 브루나이 현지에서 즉석으로 결정되어 진행되었다.
- □ 김현미 장관은 **브루나이 정부**와 **신뢰관계**를 쌓아 **새로운 시장을 개척**한 그간의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, **지속적인 기술개발**을 통해 저가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,
  -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협력하여 동반진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해외 건설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면서, 우리 기업들이 함께 브루나이 랜드마크들을 건설하는 현장을 보니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.
  - 또한, **현장 근로자**들의 **애로사항**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- □ 이후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템브롱 교량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현장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□ 김현미 장관은 브루나이에 이어 이후 말레이시아 정상순방 일정을 수행하고, 미얀마 수주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.

2019. 3. 12. 국토교통부 대변인

## ※ 현지 활동 사진



《 현장 사진 》



《 현장 사진 》

## ※ 현지 주요 언론보도

